

2013. 9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2013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3.9.24.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박희원, 송인덕, 장동환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2	10	-	4	16	-	16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4	12	-	16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4건	4 건	8월
보도	'기행탐사 충청' 총괄편 방송했으면	'기행탐사 충청' 총괄해서 다큐로 제작함.	8월
보도	저녁 이브닝뉴스 타이틀이 길다	저녁 이브닝 뉴스 타이틀 짧게 함.	8월
교양	'아침이 좋다' 교양 프로그램 리포터 헤어 확인 필요	'아침이 좋다' 리포터 출연시 헤어 깔끔하게 함	8월
기타	홈페이지에서 폐지된 프로그램(대전 MBC 토론마당) 현재 방송중인 것처럼 연결된 것 정리 필요	홈페이지에서 폐지된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중인 것처럼 연결된 것 정리 함.	8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테마여행 「여름의 끝자락 사람, 삶의 풍경 속으로 떠나다」(9/10)편에서는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보내는 요즘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포항의 숨겨진 명소와 먹거리를 소개해 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의 관광지 에 방문한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꾸밈없는 진행은 시청자들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녹음이 우거진 자연의 풍경을 보여주는 화면과 생생하게 전달되는 자연의 소리들은 시청자의 오감을 자극해 주었다. 또한 틈틈이 첨가된 내레이션과 적절하게 활용된 다이어그램은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되었다. 다만 방송 중 본인의 이름을 반복하여 말하는 진행자의 어투와 내레이션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과장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져 아쉬움이 남았다. 테마여행이 좀 더 유익한 방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템의 선정하는 것 외에도, 단순 홍보성 방송이 되지 않도록 시청자 입장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오덕성).</p>	<p>테마여행 프로그램은 지역MBC 공동제작으로 전과를 탄다. 지적한 내용 중 해당 아이템이 홍보성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제작에 유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작에 있어 단순홍보물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시사플러스 「신음하는 계룡산 장군봉」(9/13)편을 시청하였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계룡산 초입에 펼쳐있는 장군봉 아래 무분별한 난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송이었다. 현재 행정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발만을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단순히 ‘미관상 좋지 못하다’와 ‘난개발이다’, ‘러브호텔이다’만을 강조할 것이 아닌 조금 더 주민들이 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른 지역의 잘 된 사례를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오덕성).</p>	<p>좋은 지적에 공감한다. 앞으로는 대안제시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시사플러스(9/13)에서 “위기의 유부도”를 방송하였다. 충남 서천의 유부도에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진단하였다. 시작부터 취재를 담당했던 프로듀서가 직접적으로 상황을 소개함으로써 관심을 유발하였다. 현재 유부도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을 그래픽을 통해 설명해줌으로써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 현재 유부도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오덕성).	좋은 평가에 감사하다. ‘위기의 유부도’는 지역의 중요한 의제를 지역민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올바른 주제제시, 충실한 취재, 의미있는 대안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뉴스를 자주 본다. 뉴스 아이템이 보통 15개 꼭지로 이루어져 진행이 된다. 품격이 있으면서 재미도 있는 뉴스가 되길 바라면서 지적을 하고자 한다. 코너 중에 탐사보도의 성격을 지닌 입체적 구성의 뉴스가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탐사보도가 체계적으로 배치된다면 뉴스품질이 배가되리라고 본다(김형주).	탐사보도, 기획보도, 심층보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허참의 토크앤 조이(9/21)에 국악소녀 송소희양이 출연하였다. 국악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도 널리 알려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다. 이 프로그램에서 원로에서 젊은 세대까지 다양한 층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어 구성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다.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한찬희).	좋은 평가에 감사하다. ‘토크 앤 조이’는 지역의 소중한 인물들을 지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민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칭찬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교양	아침이 좋다(9/18) “추석맞이 풍경”코너에서 한국의 명절문화를 배우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소개하였다. 송편을 만드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의 밝은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을 인터뷰할 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송편을 예쁘게 만들 줄 알아야 사랑 받는다”는 표현은 지나치다.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을 보듬을 수 있게끔 작더라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유덕순).	‘송편을 예쁘게 만들 줄 알아야 사랑받는다’는 말은 전래적인 표현이다. 다문화가정 주부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었다. 시정조치 하였다. 작은 것도 표현에 주의하겠다.	편성 수용
교양	시사플러스(9/13)편을 보았다. “신음하는 계룡산 장군봉”에서는 계룡산 입구 산수 좋은 장군봉 터전에 모텔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텔이 계룡산 입	앞으로는 대안제시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구에 들어서 생기는 문제점위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명수).</p>		
교양	<p>시사플러스(9/13)편 “위기의 유부도”를 관심있게 보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풍력시범발전단지로 인해 유부도가 그 폐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은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잘 했다. 전북과 충남 양 자치단체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풍력산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대덕연구단지 내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인데 이에 대한 취재가 빠져 있어 아쉬웠다(김명수).</p>	<p>‘위기의 유부도’는 자칫 지자체간 대립으로 비칠수 있는 아이템이다. 제작진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천혜의 청정지역, 서천이 개발논리로 인해 갯벌이 훼손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기타	<p>창사49주년 특집 다큐 “노벨과학상 112년의 도전”이 23일 저녁에 방영되었다. 과학자인 본인으로서도 무척 기대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다시보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고자했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았다. 이런 특집 프로그램은 바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길 바란다(김명수).</p>	<p>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였다. 특집 프로그램 방영시 바로 게시하도록 하겠다.</p>	<p>경영 (전산) 수용</p>
기타	<p>대전MBC 모바일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대전MBC 뉴스는 자막 뉴스와 영상뉴스가 별건으로 취급되어 있다. 이를 통합하여 자막뉴스와 영상뉴스를 같이 처리하면 한다. TV 프로그램은 페이지를 터치하는 방식인데 이를 스크롤하여 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좋겠다(김명수).</p>	<p>현업의 의견을 듣고 기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현재의 방식대로 구성을 하였다. 모바일 구성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p>	<p>경영 (전산) 의견참고</p>
기타	<p>대전MBC 모바일 프로그램 중 “시사광장” 9월 1일 편이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김명수).</p>	<p>모바일에 바로 올렸다. 앞으로 놓치지 않고 모바일 프로그램을 탑재하겠다.</p>	<p>경영 (전산) 수용</p>
기타	<p>세종시로 편입된 지역 중에는 청원군이 있다. 이 지역 일부에서는 충북케이블TV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MBC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다. 지상파3사, 케이블업체, 유관기관이 협의를 해서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김영광).</p>	<p>충북 청원군 부용면 지역이 세종시 부강면과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로 나누어졌다. 세종시 부강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 지역 케이블TV 관계자를 통해 대전MBC 프로그램 TV시청이 올해 안으로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다.</p>	<p>기술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최근 케이블TV에서 노인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만든 예능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노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 메시지, 프로그램을 이끄는 흡입력 등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을 재발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다. 대전MBC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작해주길 바란다(김경숙).</p>	<p>우리나라는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기에 노인 관련 프로그램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다. 별도의 자체 프로그램은 없지만 코너 아이템으로 TV, R에서 다루고 있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시사플러스(9/6)에서 “위기의 지방재정”을 다루었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 지방자치단체가 피부로 느끼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잘 표현되었다. 지방재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드물고 관련 연구보고서도 미흡하다. 지방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중요한 시점에 방송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고 대안까지 제시해주고 있어 보기 좋았다.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길 바란다(김경숙).</p>	<p>칭찬에 감사하다. 시사프로그램은 영향력이 크므로 올바른 주제제시, 충실한 취재, 의미있는 대안을 방송에 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p>	<p>편성 의견참고</p>
보도	<p>홈페이지 활용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뉴스제보란 다음 란에 <익명게시판>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보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도 있고 뉴스를 취재하는 기자가 제대로 뉴스를 내보지 못했다고 따지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익명게시판을 보도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고 꼭 이렇게 익명으로 게시판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하다(유덕순).</p>	<p>익명게시판이지만 본인이 실명이나 연락처를 올릴 수 있게 돼 있다.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취재 대응하고 있다.</p>	<p>보도 의견참고</p>
교양	<p>“아침이 좋다”에 등장하는 리포터 의상을 한번 더 신경 쓰기 바란다. 24일 이수진 리포터가 가을을 품은 스타일링 코너에서 패션, 헤어, 메이크 업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정작 리포터 본인의 의상이 프로그램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본다(김영광).</p>	<p>코너에 맞게 포터의 의상에 더욱 신경쓰겠다. 바로 시정조치하였다.</p>	<p>편성 수용</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	----------------	------	-----